

‘정규 10집’ 박지윤, ‘긴 호흡’ 스스로 빛이 되다

6년9개월 만의 정규 음반...장편영화 같은 서사와 벽참 타이틀곡 ‘사랑을 사랑하고 싶어’ 등 열 개 트랙 담아

긴 호흡으로 자신을 밝혀서 스스로 빛이 돼 본다(숨을 쉰다). 이진 심어송라이터 박지윤이 숨 쉬는 방식이다. 세상을 뒤흔든 아이돌이었던 그녀는 멀리멀리 사라지는 숨을 내뿜고 “어제와는 또 다른 오늘의 나”가 됐다. 정규 7집 ‘꽃, 다시 첫번째’(2009)로 진정한 이름을 되찾은 박지윤은 9집까지 자신만의 호흡으로 수작을 만들어냈다. 세상으로 빨리 들어가는 아름다운 선율과 말들은 그간 그녀가 조용하게 키워온 쌓아온 침묵 위에서 꽃을 피웠다.

덕분에 공백 기간에도 젊은 작가주의 뮤지션들의 뮤즈로 통했다.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RM(김남준)의 첫 솔로 앨범 ‘인디고’에 마지막 트랙으로 실린 ‘넘버 투’(No.2)를 피쳐링하며 신화적 상상력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밴드 ‘새소년’ 프러스트 퍼슨 황소윤의 솔로 프로젝트 ‘소!윤(So!YoON!)’의 두 번째 정규앨범 ‘에피소드1 : 러브(Episode1 : Love)’에 실린 ‘러브(LOVE)(a secret visitor)’에선 포용의 미학으로 비밀스럽고 영적이며 환상적인 사랑의 품을 떠올리게 했다. 심어송라이터 겸 피아니스트 전진희의 정규 3집 ‘아무도 모르게’에 실린 ‘내게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아요’ 피쳐링은 허상 같은 사랑이라도 믿게 만드는 빛나는 의지의 반짝거림을 보여줬다.

그런 박지윤이 정규음반으로 따지면, 6년 9개월 만인 최근 발매한 10집 ‘숨을 쉰다’는 역작이다. 최근 국내 대중음악에서 보기 힘든 클래식한 숨을 쉬는 이 음반은 세상에 허투루 만들어진 음표, 음절은 없다는 듯 귀하게 묵묵히 마음으로 흘러 들어온다. 무엇보다 앨범에 실린 열 곡은 저마다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박지윤이 신중하게 배치한 트랙리스트 순서 덕에 장편 영화 같은 목적감과 벽참을 얻었다.

박지윤은 꽃잎이 음악을 해왔다. 그녀의 음악을 듣고 실망하는 날은 향후에도 절대 당도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10집 ‘숨을 쉰다’와 관련 박지윤과 서면으로 나눈 일문일답.

-정규 음반은 무려 6년9개월 만입니다. 팬분들이 너무 반가워하고 음반에 대한 평도 너무 좋더라고요. 소화가 어떠신지요?

“정규 10집 앨범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고 설레입니다. 약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틈나는 대로 한 곡씩 만들면서 오래도록 발매 할 날을 기다렸어서 더 긴장되고 다른 때와는 다른 마음의 울렁임이 있었습니다. 발매 전에는 소풍 가는 아이처럼 잠도 못 이루었네요. ㅎㅎ”

-우선 작업하신 분들과 인터뷰로 음반 작

업기를 풀어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유튜브에 올리신 영상들의 내용은 현재 음악 산업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게 된 과정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번 정규 앨범을 한집 한집 만든 과정을 어떤 이야기로든 남겨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곡을 그냥 듣기만 해도 좋지만, 작업의도와 과정을 알고 들으면 다르게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매거진B’의 팟캐스트를 진행해 오면서 정말 많은 인터뷰 지면을 읽었었어요. 거기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집 앨범을 함께 작업한 분들과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편안하고 쉽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앨범 인터뷰 영상들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7집부터 제작을 하셨고 중간에 미스틱에 잠깐 몸 담기도 하셨지만, 최근 세 앨범은 지윤 씨의 음악적 역량이 빛나는 앨범들이었습니다. 이번 10집은 프로듀서로서 가장 신경 쓰신 지점은 무엇인가요? 열 곡이 실렸는데 10집이라 열 곡을 의도하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의 박지윤이 가진 소리를 담는데 가장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느 키까지 고음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곡의 느낌을 잘 전달하는 색과 톤, 거기에 맞는 키를 정하기 위해 고민과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귀에 꽂히는 후크(Hook)를 강조하는 최근 음악 트렌드와는 달리 한국 한국 전체에 감정의 흐름을 클래식한 편곡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또 10집이어서 열 곡을 정한 것은 아니고 더 많은 곡들이 있었지만 곡들을 고르고 조합해서 앨범 전체를 흐르는 서사를 재구성하고자 했는데 우연히 열 곡이 됐네요.”

-전 질문과 연결되는 것일 수 있는데 이번엔 특히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빼대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부다페스트 오케스트라 사운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진희 씨 작업이 매개가 됐던 거죠?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앨범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예전부터 스트링 사운드는 앨범을 만들 때나, 콘서트를 할 때 늘 관심과 애정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꽃잎’ 작업을 시작하면서 만난 부다페스트 오케스트라와의 작업은 큰 영감을 줬습니다. 이전에는 밴드사운드로 기본 편곡이 완성 된 상태에서 스트링 편곡을 부가적으로 했다면, 이번 앨범은 드럼이 많고, 밴드사운드가 아닌 피아노와 현악



오케스트라가 메인 악기역할을 했다는 것이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타이틀곡 ‘사랑을 사랑하고 싶어’는 정말 웅장한 서사가 일품인 곡이었고 애절하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몽근한 희망이 배어 있어서 더 좋았어요. 이 곡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부르셨나요?

“가사에서 ‘사랑’을 그렇게 대하고 바라보는 게 너무 신선하고 좋았고, 저에게도 ‘사랑’이라는 감정은 늘 여러가지 많은 영감을 주는 감정이예요. 이 곡에서는 이별을 겪어서 사랑 자체를 사랑할 수 없다고 외치지만, 사랑은 나의 빛이고 노래라는 역설. 그 단순하고도 깊은 감정을 노래로 전하고 싶었어요.”

-몽골에서 촬영한 ‘사랑을 사랑하고 싶어’ 뮤직비디오가 너무 멋졌어요. 행위예술가 박승우 씨는 어떻게 섭외가 된 건가요? 무용수 분이나 감독님과 따로 어떤 의견을 교환했는지요. 이 뮤직비디오가 곡의 어떤 매력을 어떻게 잘 살렸다고 보십니까?

“박승우 님은 뮤직비디오 팀이 추천해주신 분중에 여러모로 잘 맞을 것 같아 작업하게 됐고요. 감정을 표출하지만, 현란함보다 절제된 동작을, 난해함 보다 아름다움으로 표현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 드렸어요. ‘사랑을 사랑하고 싶어’ 곡 자체가 워낙에

서사적인 곡이기도 하지만, 음악은 소리뿐이고, 경이로운 자연의 모습과 함께 사람 몸으로 감정이 표현되면 여러 감각이 더 증폭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잘 만들어진 것 같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뮤지션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계시고, 이로 인해 젊은 리스너들 사이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요. 지윤 씨는 젊은 세대에게 어떤 영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한데, 제가 늘 하던 일을 반복하고 단순하게 살아가서 그런 건지 그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자신에게 조금 더 축적된 만큼 조금 더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다음 정규 음반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지요? 내년 여러 활동 계획이 있을 텐데 짧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지금까지 제게 쌓인 것, 좋아하는 소리와 느낌을 아낌없이 앨범에 담았으니 다음 정규 앨범은 또 그 만큼이 더 쌓여야 될 것 같아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년 겨울에는 해외도 싶은 몇 곡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전전히 준비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매년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 중입니다.”



뉴진스, “日서도 뜨거운 인기...정식 데뷔 전인데”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정식 데뷔 전 일본 내 뜨거운 인기로 힘입어 연말 주요 시상식과 방송에 연이어 출연한다.

19일 소속사 어도어(ADOR)에 따르면, 뉴진스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65회 빛나다! 일본 레코드 대상’(이하 ‘일본 레코드 대상’)에 출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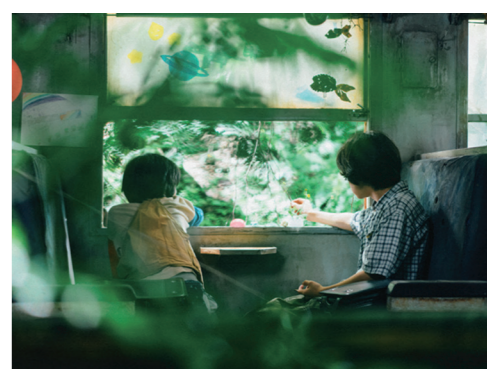
뉴진스는 이 시상식에서 싱글 ‘오엠지(OMG)’의 수록곡 ‘디토(Ditto)’와 두 번째 EP ‘켓 업’의 트리플 타이틀곡 중 하나인 ‘ETA’, 수록곡 ‘뉴진스(New Jeans)’ 등 총 3곡의 무대를 펼친다.

‘일본 레코드 대상’은 일본작곡가협회에서 주최하는 음악 시상식이다. 1959년에 시작돼 일본에서 가장 오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시상식이다. 뉴진스는 ‘우수작품상’과 ‘특별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우수작품상’은 그해 발표된 곡 중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은 10곡에 주어지는 상이다. ‘디토’가 외국 곡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우수작품상’에 선정됐다. ‘우수작품상’ 수상작은 자동으로 대상 수상 후보가 돼 뉴진스는 ‘디토’로 대상 수상도 노리고 있다. 일본 정식 데뷔 전 한국 곡으로 수상과 함께 대상 후보에 오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뉴진스는 오는 27일에는 NTV의 ‘발표!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 -연간 뮤직 어워드 2023-’(이하 ‘연간 뮤직 어워드 2023’)에 출연한다. ‘연간 뮤직 어워드’는 주요 음악 차트 성과를 바탕으로 한 해 가장 인기를 얻은 노래를 소개하는 NTV의 대표 연말 음악방송 프로그램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데뷔곡 ‘어텐션(Attention)’ 무대로 눈도장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초청받아 공연한다.

‘연간 뮤직 어워드 2023’은 오는 27일 오후 7시부터 NTV에서, ‘일본 레코드 대상’은 30일 오후 5시 30분부터 TBS에서 방영된다.



놀라운 흥행...고레에다 히로카즈 ‘괴물’ 30만명 ↑

일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새 영화 ‘괴물’이 19일 30만 관객을 넘어섰다. 예술·독립영화로 분류되는 작품 중에선 ‘스즈메의 문단속’ 이후 올해 두 번째로 누적 관객 30만 명을 돌파한 작품이 됐다.

영화진흥위원회와 미디어캐슬에 따르면, ‘괴물’은 이날 오전 8시께 30만 관객 고지를 밟았다. 전날까지 누적 관객수는 약 29만7000명이었다. 앞서 ‘괴물’은 고레에다 감독이 만든 일본영화 중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번 작품 전까지 최고 흥행작은 2013년에 나온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12만8012명)였다. 고레에다 감독 영화 중엔 ‘브로커’(126만명)가 국내에서 가장 흥행한 작품이지만, 이 영화는 한국영화다.

‘괴물’이 국내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 작품의 주인공 ‘미나토’를 맡은 쿠로카와 소야와 ‘요리’를 연기한 히이라기 하나타가 한국을 찾는다. 두 사람은 오는 20일 입국해 무대 인사 등을 통해 국내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다음 날엔 국내 언론과 간담회에 참석한다.

올해 칸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은 이 작품은 같은 반 학생인 미나토와 요리가 학교 폭력 문제로 얽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드라마 작가로서 일본 최고로 손꼽히는 사카모토 유지가 각본을 썼고,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난 영화 음악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가 음악을 만들었다. 쿠로카와 소야, 히이라기 하나타와 함께 안도 시쿠라, 나가야마 에이타 등이 출연했다.



성준, 김남길과 한솔밥 길스토리와 전속계약

배우 성준이 길스토리엔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길스토리엔티는 “배우 성준이 길스토리엔티와 함께 하게 됐다. 선한 캐릭터부터 약역까지 다채로운 얼굴을 소유한 배우답게 성준이 가진 역량과 진면모를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19일 밝혔다.

2011년 드라마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데뷔한 성준은 ‘사랑이라 말해요’, ‘아일랜드’, ‘미담 앙트럼’, ‘연애의 발견’, 영화 ‘괴기맨손’, ‘악녀’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방탄소년단 ‘옛 투 킴’도 넘겼다...2억뷰 뮤비 26번째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백기(군대+공백기)에도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군백기(군대+공백기)에도 기록 행진 이어가

있다.

19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작년 6월 발매한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Proof)’ 타이틀곡 ‘옛 투 킴(Yet To Come)(The Most Beautiful Moment)’의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 수가 이날 오후 12시43분께 2억회를 넘겼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통산 26개의 2억뷰 이상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옛 투 킴’은 방탄소년단이 걸은 음악 여정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더욱 찬란하게 빛날 앞날을 기약하는 미디어 템포의 얼터너티브 힙합(Alternative hip-hop) 장르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엔 ‘하루만’, ‘상남자(Boy In Luv)’, ‘런(RUN)’, ‘인트로(Intro) : 화양연화’, ‘피 땀 눈물’, ‘봄날’, ‘페이크 러브(FAKE LOVE)’, ‘노 모어 드림(No More Dream)’ 등 지난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오브제들이 다시 등장해 추억을 자극한다.

또한, 광활한 사막이 이들의 흔적으로 채워

지는 가운데 지난날을 회상하며 노래하는 방탄소년단의 모습이 이들의 새로운 여정을 기대하게 한다고 빅히트 뮤직은 설명했다.

‘옛 투 킴’ 음원 역시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를 강타했다.

멜론 실시간 차트인 ‘톱 100’ 개편(2021년 8월) 후 K-팝 아티스트의 신곡이 공개된 지 1시간 만에 1위에 오른 것은 ‘옛 투 킴(Yet To Come)’이 처음이었다. 뮤직비디오는 공개 시점에 최대 동시 접속자 수 285만 명을 넘길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한국어 곡인데도 ‘옛 투 킴’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 핫 100’(2022년 6월25일자) 13위에 올랐다. 이 곡이 수록된 앨범 ‘프루프(Proof)’는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 1위로 직행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옛 투 킴’과 각 17억뷰의 ‘다이너마이트’와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Feat. Halsey)’를 포함해 총 39편의 역 단위 조회 수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고 있다.